현불 논단

중생 향한 발걸음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20년 전엔 스님들의 수행 목표
근래 포교 · 복지 '보살행' 추구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유마거사의 답변, 대비심 발로
십우도 입전수수도 이를 표현

월주대종사, 이 시대 대비행자
'보살행' 목표토록 이정표 세워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국가이다. 무엇이 대승이라는 뜻인가? 대승불교답게 승려들이 대승을 실천하고 있는가? 수행과 대승이 접점을 이룰 수는 없는가? 영원히 해답이 없는 관건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스님들의 70%가 수행에 목표를 두었다. 어느 스님이나 학문을 하던지 포교를 하던지 마지막 귀착지를 선방이라고 대답해 '수행자'라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근자에는 스님들 70%가 중생들을 위한 포교,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보살'이 많아졌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보살행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대승불교도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다. 즉 부처님이 과거생에 보살로서 선업을 쌓은 점을 응용해 자신들도 '보살'이라고 칭하면서 중생들과 더불어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보살들은 자신보다는 남을 인도하고 베푸는 바라밀행을 현실에서 구현코자 하였다.

보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부파불교 승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을 증득하는 아라한(arahat)이다. 아라한이 되면, 6도에 윤회하지 않는 회신멸지(灰身滅智)를 최고 경지에 두었다. 그런데 대승의 보살들은 아라한이 아닌 '부처'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면서 보살들은 열반에 들어 적정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생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사바세계에 돌아오는 것이다. 즉 열반에 안주하지 않는 무주열반(無住涅槃)을 주장했다. 진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열반에 들지 않는 대비천제(大悲闡提)인 것이다.

대승경전의 대표인 〈유마경〉에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왜 병이 났느냐'고 질문하자, 유마거사가 이런 답변을 한다.

"일체중생에게 병이 있기 때문에 나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혹 일체중생의 병이 소멸되면, 곧 나의 병도 소멸될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병에 아파하는 것이요, 그 중생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 · 무차별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비심에서 발로(發露)된 것이다. 〈화엄경〉이나 〈무량수경〉 등 대승경전에 '먼저 중생을 제도하고 후에 성불한다(先度衆生後成佛)'는 사상이 언급되어 있다. 사홍서원만 해도 첫 번째가 '중생무변서원도'이다. 그런데 곽암의 십우도(수행과정을 10개의 그림으로 그린 것)에서는 마지막 그림이 입전수수(入纏垂手)이다. 아홉 번째 그림이 수행해 깨달았다면, 그 다음 열 번째 그림은 중생을 향해 저자거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떠하든 대승보살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번뇌를 떠나 보리를 구할 수 없듯이 중생을 버리고 참다운 세계가 따로 없음이요, 중생 속에서 해탈을 구해야 한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이지만, 법보인 승려에게 중생(불자)이 없는 수행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 이 원리(無住涅槃)대로 살다간 대비행자가 있을까? 답변하자면, 근자에 입적한 월주 대종사다. 보현행으로서 보리를 증득(以普賢行 悟菩提)하신 선지식이다. 스님께서 10.27법난을 겪고, 바람 쐬러 멀리 나가셨다가 이런 서원을 세웠다. "안살림만 할 게 아니라 바깥 살림도 중요하다. 바깥살림을 확대해 챙겨야 한다." 이런 서원을 세운 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대비(大悲)나무'를 수십 그루 심었다. 깨달음을 사회적으로 구현하신 분이다. 한국불교 승려들이 자리(自利)가 먼저가 아니라 이타(利他, 복지사업)를 목표로 하도록 현대의 한국불교사를 변형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 열반에 홀로 머물지 마시고 불쌍한 중생을 향한 발걸음, 어서 내딛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社 說

해외특별교구 활성화 기대한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가 드디어 설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은 지난 2017년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을 개정하고 국내 사무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4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해외사찰 수는 더욱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기준 10년만에 해외사찰의 57%가 감소하는 참담한 결과를 목도해야 했다.

특히 2020년은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해외사찰 지원과 해외포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됐고 교구가 설립된 것은 유의미한 성과였으나, 10년이 지나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셈이다.

本紙는 올 초 해외사찰 수 급감 현황과 원인, 대안과 과제를 분석한 기획기사를 통해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각을 취재했다. 종단 종무행정과 해외 현지상황 및 현지법과의 괴리감을 시작으로 현지사찰들의 여러 어려움들이 지적됐다. 종단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사무처는 일종의 해외포교 활성화의 타개책이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인근 조계종 전법회관 3층이라는 위치도 종단과의 긴밀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전담인력도 배치됐다. 앞으로 국내 사무처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는 이유다.

4년의 기간을 묵힌 후에야 어렵게 탄생한 사무처다. 해외사찰과 해외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종단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범위와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포교 새로운 신호탄 되길

도쿄올림픽에서 불자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불자로 구성된 여자 양궁대표팀부터 남자 김제덕 선수, 펜싱의 김지연 등이 주인공이다.

현재 불교계는 조계종 체육인전법단과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포교를 펼치고 있다. 지도법사와 선수들을 중심으로 불자 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엘리트 스포츠 포교에는 불교계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 법당에서 법회와 마음수행, 심리상담 등을 결합한 포교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한국 불교계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스포츠와 생활 체육 현장을 불교 포교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춤하지만 생활체육인 비율이 높아지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문화가 조성되기에 생활 스포츠 포교가 포교의 새로운 장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먼저 내다보고 달마 스노보드대회를 열어온 호산 스님, 야구단을 운영하는 불암사와 신봉사 등이 좋은 예다.

조계종 산악회와 같이 생활스포츠동호회, 불자회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는 서로 모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훌륭한 방편이다. 불자 개개인이 수행과 함께 건강도 지키며, 불자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종단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린다. 이젠 생활 속 스포츠 포교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지상의 모든 사건은 물질세계에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의 세계에서 그려진 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재난, 불행, 질병이라는 것도 마음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세계에 있을 때 수정해두면 재난이 재난으로 나타나지 않고, 불행이 불행하게 되지 않으며, 질병이 질병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위대한 큰 공장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노력과 정진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공장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교, 예술, 철학과 사상도 마음공장에서 제조된 생산품입니다.

마음 공장을 관리하는 법을 알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마음이 그린대로 나타나고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통화하고픈 마음에서 핸드폰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음에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현재의식은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의식하는 마음은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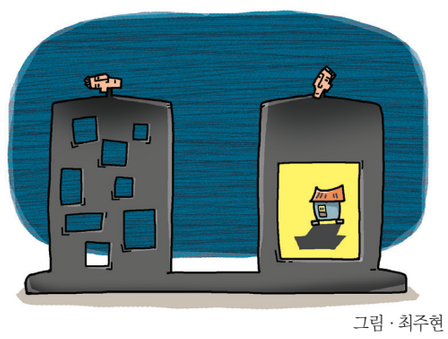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을 하겠다고 의식한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부르지 않는 불행과는 해후하지 않습니다. 유는 유를 부르지요. 인간의 운이 기울기 시작하면 여러 방면에서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명이 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행한 사건을 끌어 들이는 자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끌어들이는 자석을 마음속에서 제거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운명이 좋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한 생명력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어떤 재난을 당하건 외부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달갑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의 마음속에 그 달갑지 않는 것이 있음을 살펴보고, 그 달갑지 않는 성질을 마음속에서 제거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변 환경과 건강 상태 등이 자신의 개선된 마음에 따라 변해갑니다.

어두운 마음, 편협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명랑하고 밝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날마다 노트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